

벤처기업 경제활성화 한축 담당해야



글 / 이 해 찬 (국무총리)

존경하는 장흥순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영예의 빛나는 수상자 여러분!

오늘도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내외 벤처인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벤처의 진취적 정신이 필요한 지금,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벤처인의 축제, '벤처코리아2004'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곳곳의 많은 동포 벤처기업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벤처인 여러분!

한국의 벤처는 IMF 외환위기라는 험난한 파도를 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벤처의 성공신화는 국민에게 꿈을 주었고 벤처의 도전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무엇보다도 활력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수출은 호조이고 경제시스템도 안정적이지만 내수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도 건전하고 자금도 풍부하지만 진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벤처인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벤처의 활력이 필요합니다. 벤처가 경제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능력을 갖춘 벤처기업, 끊임없이 혁신하는 벤처기업,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벤처기업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벤처기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벤처 투자 재원을 조성하며 각종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벤처인 여러분!

2000년, 적자에 허덕이던 제록스를 되살린 제록스의 CEO 앤 멀케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진취적인 젊은 벤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벤처코리아2004'가 새로운 벤처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 벤처 기업인 여러분의 건승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 한인벤처 축제 한마당 벤처코리아2004!



1

전 세계 한인벤처 축제 한마당인 '벤처코리아2004'가 10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열렸다. 벤처기업의 도전의식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의미에서 'Ongoing challenges, Shared prosperities(끝없는 도전, 함께하는 번영)'을 기치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및 국내 벤처인 2000여 명이 참석하여 명실상부한 벤처산업 최대의 축제임을 보여주었다.

행사 첫날에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벤처관련 국내외 주요인사, 벤처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및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개회식에서 벤처인들은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벤처사회공헌선포식을 갖고, 국민과 더불어 21세기 벤처강국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벤처 사회공헌 포럼'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벤처 육성 대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둘째날에는 국내외 한민족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오후에는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모델을 위한 '트라이앵글넷'이 열렸다. 또한 '영리더, 나우엔류처'에서는 리딩벤처기업인과 창업벤처기업인간의 일대일 후견인제도를 통해 벤처스승으로서 자라나는 새싹벤처인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벤처코리아2004'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벤처인, 1세대벤처인부터 자라나는 미래벤처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벤처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핵심엔진 역할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1. '벤처코리아2004' 개막을 알리는 협회 장흥순 회장
2. 벤처사회공헌선포식 점등버튼을 누르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사진 중앙), 협회 장흥순 회장(사진 왼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준 회장
3. 기초연설을 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로버트 러플린 총장
4. 국내외 벤처인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벤처코리아 행사 전경
5. 행사 개막을 축하하는 벤처인들
6. 트라이앵글넷에서 상담 중인 대기업 임원과 벤처기업인
7. 한사랑벤처텔레이웃동 기금 전달식
8. 영리더, 니우엔벤처 행사장에서 후견인과 악수하는 리딩벤처인



벤처기업대상, 픽셀플러스 수상



‘벤치코리아2004 개막식과 벤처기업대상시상식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국내외벤처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로버트 러플린 (Robert B. Laughlin) 카이스트 총장이 ‘IT to Come’을 주제로 지속적인 R&D의 중요성과 벤처기업의 가치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러플린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정보기술(IT)의 핵심은 놀라운 전자제품이나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을 창출해내는 것”이라며 향후 정보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역설했다.

이어서 협회 장흥순 회장이 ‘벤처코리아2004 행사진행경과’를 보고하고 참석자와 함께 ‘벤처 파이팅!’을 외치면서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시작과 함께 벤처인들의 윤리경영과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벤처사회공헌선포식이 열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벤처기업대상시상식은 건전한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독창적 기술력과 모험정신, 그리고 신지식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성장해온 우수벤처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2004년도 벤처기업대상 수상기업(자)은 벤처기업부문 53개(정부포상 50개, 협회장상 3개), 유공자 개인부문 19개(정부포상 18개, 협회장 1개) 등 총 72개로 확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국내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대기업에게 특별공로상 2개를 수여했다.

2004년도 벤처기업대상은 벤처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최고 훈격이 동탑산업훈장에서 은탑산업훈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년도 벤처기업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반도체 부품 모듈 응용시스템 개발업체인 픽셀플러스(대표 이서규)에게 수여되었다. 픽셀플러스는 서류심사에서 매출액 증가율과 수출비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기술 및 제품의 가치 등 현장 심사를 통해 기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에는 이동통신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업체인 인프라밸리(대표 최염규)가 선정되었으며 석탑산업훈장에는 콘텐츠 마이크로폰 등 음향관련 제조업체인 비에스이(대표 박진수)가 선정되었다. 다음 훈격인 산업포장은 씨앤드에스마이크로웨이브(대표 이홍배)가 수상했다.



벤처기업대상 수상자 리스트(벤처기업부문)

은탑산업훈장 픽셀플러스대표 이서규 | 철탑산업훈장 인프
라밸리(대표 최영규) | 석탑산업훈장 비에스이(대표 박진수) |
산업포장 씨앤에스마이크로웨이브(대표 이홍배) | **대통령표
창(6)** 즐만테크(대표 이영필) / 그라비티(대표 정휘영) / 케이이
엔지(대표 김동관, 김영래) / 이쓰리넷(대표 성영숙) / 우진에
이씨티(대표 신병순) / 모투스(대표 신관식) | **국무총리표창(9)**
씨앤에스(대표 고영산) / 에누리닷컴(대표 서홍철) / 엑스씨이
(대표 김주혁) / 대한이디엠(대표 김외경) / 씨엔테크(대표 서성준)
/ 웬스(대표 박학석) / 해피캡(대표 강광복) / 솔트웍스(대표
최종표) / 이츠웰(대표 유순재) | **산자부장관표창(10)** 유니빅
(대표 박용일) / 탑엔지니어링(대표 김원남) / 아이레보(대표
하재홍) / 다린(대표 김정수) / 토마토엘에이(대표 최선호)
/ 정림산업(대표 이정림) / 김스라이센스(대표 김준영) / 모비
아넷(대표 유승철) / 서진아이엘에스 (대표 이영주) / 모빌탑
(대표 김희석) | **중기특위위원장표창(10)** 자바정보기술(대표
박상열) / 에치에프알(대표 정종민) / 메트로닉스(대표 강광균)
/ 뉴젠텔레콤(대표 홍중원) / 스틸코리아(대표 박대열, 이태수)
/ 만도앤앤소프트(대표 최장원) / 보원경금속(대표 이경환) /
스지텔레콤(대표 김선섭) / 제노마인(대표 박경국) / 미래로가
는길(대표 임영환) | **중기청장표창(11)** 피에스텍(대표 성환호) /
서봉바이오베스텍(대표 정연권) / 우진시스템(대표 이성근) /
메디아나(대표 김문중) / 이포넷(대표 이수정) / 성원이엔티
(대표 김성우) / 디케이테크(대표 노은식) / 엑스(대표 문형세) /
그래미(대표 신삼례) / 한국기업인증(대표 조현준) / 한영베스
트(대표 한경희) | **벤처기업협회장(대학생창업벤처기업부문)**
버츠텔코리아(대표 이민철) / 세븐스엔터테인먼트(대표 김준모)
/ 키스킨(대표 김소희)

벤처기업대상 수상자 리스트(유공자부문)

산업포장(1) 신호주(코스닥증권시장 대표) | **대통령표창(2)**
이현조(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사무관) / 한누리투자증권
| **국무총리표창(3)** 반윤국(KTB네트워크 벤처투자본부 상무) /
강문현(딜로이트 FAS 전무) / 대륙종합건설 | **산자부장관표창
(4)** 강홍기(코스닥위원회 코스닥관리부 시장관리팀 팀장) /
곽성호(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관리팀 투자관리처 과장) /
정순신(포스코 투자사업지원실 사내벤처지원팀 팀리더) /
홍병철(PDS Global 대표) | **중기특위위원장표창(3)** 김원주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 행정주사부) / 전요섭
(DUCC Europe 대표) / 정광일(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실
차장) | **중기청장표창(5)** 김세연(벤처기업협회 울산지회 이사)
/ 김숙래(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실 실장) / 김정근(국민
은행 스타타워기업금융지점 과장) / 오준호(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단장) / 장석주(중소기업은행 일산장항지점
기업고객팀 차장) | **벤처기업협회장표창** 정병희(스그넷 대표)
| **특별공로패** 이성철(현대기아자동차 현대기아벤처플라자
상무) / 서유열(KT-기술조사평가단 사업협력부 단장)

대통령상은 즐만테크(대표 이영필), 그라비티(대표 정휘영), 케이이엔지(대표 김동관, 김영래), 이쓰리넷(대표 성영숙), 우진에이씨티(대표 신병순), 모투스(대표 신관식)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씨앤에스(대표 고영산)의 8개 기업이, 산자부장관상은 유니빅(대표 박용일)의 9개 기업, 중기특위위원장상은 자바정보기술(대표 박상열)의 9개 기업, 중기청장상은 피에스텍(대표 성환호)의 10개 기업이 수상했다.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코스닥증권시장 신호주 대표(산업포장) 외 18명에게 개인표창도 수여되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와 새싹벤처인 양성을 위해 마련한 새싹벤처상은 대학생창업벤처기업인 버츠텔코리아(대표 이민철)의 2개 기업에게 돌아갔다.

개막식과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으로 달아오른 축제 분위기는 축하만찬장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벤처기업대상 수상자에게는 축하의 인사말을 나누고 벤처인의 건승을 외치기도 했다. 해외에서 참석한 해외비즈니스 관계자와 벤처인들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일년 동안 벤처기업 임직원 1500여 명이 참여한 직장모금운동 <한사랑벤처 릴레이 운동>을 통해 모은 기금 3000만원을 천주교성폭력상담소(아동성학대대응능력 강화사업, 소장 김미숙)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청소년보호관 지원사업, 관장 김현숙)에 절반씩을 기부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되었다.

제5차 INKE 정기총회

아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비전 공유



지 난 5일 코엑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제5차 INKE 정기총회는 80여 명의 국내외 INKE임원과 회원이 참석해 'INKE Global Foru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프로그램은 INKE 뉴욕지부 레이먼드 강(Raimond Kang) 의장의 진행으로, 나스닥 간삼 다스(Ghanshyam Dass) 아시아담당 총괄이사와 홍콩 창신과기서 앤터니 왕(Anthony Wong) 차관의 '아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비전'에 관한 1, 2부 스피치로 진행되었다.

먼저 간삼 다스 총괄이사는 'A Roadmap To Nasdaq'이라는 주제로 나스닥 등록 방법과 등록 단계별 IPO의 효과적 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2부에서는 앤터니 왕 차관이 '혁신과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스피치를 이어나갔다.

스피치가 끝난 후에는 이들과 INKE 뉴욕지부 레이먼드 강 의장과 INKE 전하진 의장의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벤처종합상사 연내 설립

협회는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형태로 '벤처종합상사'를 설립한다. 초기 자본금 10억 원은 협회 회장단 중심으로 순수 민간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벤처종합상사는 올해 안에 자본 및 인력 확충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로 조성한 100억원대 전용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벤처종합상사는 향후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해외 부문과의 비즈니스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INKE조직을 해외파트너로 활용하여 국내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민우 INKE 신임의장 취임사

지금 세계시장은 교통과 통신, IT기술 발달로 국경의 개념이 없는 글로벌마켓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마케팅을 펼치고, 기업간에도 투자와 기술 제휴 등으로 협력관계가 더욱 가속화 또는 다양화되고 있다.

그동안 INKE 활동이 해외지부 설립 등 양적 확장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같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에 연계하는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 벤처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해외지부 의장을 발굴하고 다른 국내외 한인 기업 네트워크와도 연계해 INKE가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끌겠다.

앞으로 INKE는 실력 있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세계시장에 소개하고, 우리 벤처기업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을 불러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제9차 INKE 정기이사회

3대 의장에 남민우 대표 선출

5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9차 INKE 정기이사회는 14명의 해외지부 의장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국내외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이 많았던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4년 한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방콕·동경·LA·자카르타 등 상반기에 추진된 신규지부 설립경과와 정관개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 파리·북경·심양·연길·사우디아라비아 5개 지역의 신규지부 신청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2005년도 사업계획

안에 대한 의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 중 하나인 2005년도 INKE Spring 개최지로는 애초 후보신청을 마친 일본 동경, 캐나다 토론토,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가 경합을 벌여 캐나다 토론토로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는 전하진 의장을 이을 신임의장 선출 건도 논의되었다. 그 결과 INKE 3대 의장으로 다산네트웍스의 남민우 대표가 선출되었다. 전하진 前 의장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강문현 감사는 연임되었다.



홍콩사이언스파크 투자유치 설명회

한·홍콩간 비즈니스 제휴 모색

한·홍콩간 비즈니스 제휴방안 모색을 위해 '홍콩사이언스파크 투자유치 설명회'가 INKE행사가 끝난 후 오찬 네트워킹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 홍콩 창신과기사의 엔터니 윙 차관을 비롯하여 홍콩사이언스파크의 개발주체인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의 탐 사장(C. D. Tam)과 '사이버포트'의 니콜라스 양(Nicholas Yang), 펀드를 관리하는 '인베스트 홍콩(Invest Hong Kong)'의 사이먼 칭(Simon Tsang)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홍콩 정부차원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IT산업단지인 홍콩사이언스파크(HKSP) 및 사이버포트에 대한 소개와 여기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펀드를 소개하고 한국과 홍콩 기업간 비즈니스 제휴방안을 모색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벤처 육성 대토론회

균형정책과 발전정책을 함께 병행해야



벤처산업의 특화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벤처 육성 대토론회'가 4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의 '현 정부의 지방화 정책 및 지방벤처 육성전략'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 날 토론회는 각 지역 대표 벤처기업인들과 지역정책 입안자, 관련분야 학계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책 수요 및 각 지역 벤처산업의 특화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사회 | 조영삼 박사(산업연구원)

주제발표 | 성경룡(국가균형발전위원장)

패널 | 박용일(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박상열(협회 제주지회장), 정영태(경기중소기업청장)

토론참석자 | 정웅기(협회 전북지회장), 양해진(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성경룡 | 국가 균형발전이란 균형정책과 발전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역내 기업과 대학과 지자체가 결합하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해 낙후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야 한다. 이를 위해서 70개 낙후 시·군·구를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년간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7개 산업단지를 시범 선정해 연구·개발 기능과 생산 기능이 결합된 선진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들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벤처관련 정책은 첫째, 지금까지 연구개발쪽에 치중되어온 국가정책을 넘어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및 공급자와 수요자의 기술거래와마켓 형성에 관한 것이다. 둘째, 어떻게 하면 RIS정책과 클러스터 정책을 각 지역별로 잘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박용일 | 대구 경북지역 벤처기업은 우수인력 확보, 자금조달, 마케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 기술관련 연구소 부재로 기술 이전이 어렵고 기술집약형 창업 역시 저조한 상태이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 기업이나 연구소 근무자에게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병역 특례제도 확대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해진 | 지역내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은 저변확대를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180개이던 벤처기업 수가 270개로 늘어났다. 또, 광주과학기술원 출신 인재를 지역내에 남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지방 특화전략을 위한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열 | 중국시장에 밀린 제주는 이제는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하나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신보 또는 기술평가센터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술신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산, 광주까지 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용기 | 지방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이야기할 때 도심지역의 평가기준에 맞추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 균등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뒷받침된다 해도 인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방에 우수한 인재가 남을 수 있도록 고른 인재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영태 | 지방벤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지역벤처 혁신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방에서의 네트워킹 형성 및 업종별 벤처혁신협의회 구성 둘째, 지역별로 모여 있는 지역벤처 육성을 위해 전방위 후방위 유관시스템을 조성 셋째, 지역벤처에 창업기관을 확충하고 특정 업종의 금융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영삼 | 오늘 토론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동안 R&D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벤처기업의 또다른 육성방안은 없는 것인가 둘째, 지방에서 벤처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혁신형 창업 이후 부족한 제반 자원과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새싹벤처 양성을 위한 후견인제도 발족



리딩벤처기업이 대학생 창업벤처기업을 후원하는 행사가 벤처기업과 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협회와 대학생창업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KOSEN, 회장 유덕수)의 상호 협약으로 시작된 이 자리는 'Young Leaders, Now & Future' 프로그램을 통해 리딩벤처기업과 새싹 벤처간의 후견인제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대학생 벤처기업인들에게 우수 리딩벤처기업인의 생생한 경험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한 기업으로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유망 벤처기업과 버추얼텍코리아, 사인업소프트, 키스킨 등 대학

생 벤처기업 18개사가 각각 참여하였다.

후견 벤처기업인들은 앞으로 1년간 대학생들의 경영 애로사항과 질문에 대해 이메일을 통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학생 창업벤처기업 출신인 협회 조현정 부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그동안 후배기업 육성을 위한 애정은 있었으나 바쁜 일과로 인해 의미 있는 활동에 발벗고 나서지 못했던 리딩벤처기업들이 본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대학생 창업벤처기업 세브스엔터테인먼트 김준모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받게 돼 매우 든든하다"며 "사업마인드, 자금조달, 인사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후견기업 매칭 업체〉

리딩벤처기업	대학생 창업벤처기업
NHN	세브스엔터테인먼트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인업소프트
한글과컴퓨터	P2P WORLD
티켓링크	에프알엠
터보테크	버추얼텍코리아
로커스	C4 GLOBAL
비트컴퓨터	NE MEDIA
손오공	마이크로에어로봇
다산네트웍스	하나기전
디엠플러스	티에스커뮤니케이션즈
유비케어	모마소프트
이니시스	한악과사람들
태화일렉트론	키스킨
하늘사랑	뉴21커뮤니티
CJ인터넷	아이미루닷컴
싸인에스	선진텍
이나루T&T	멘토교육
코캠엔지니어링	드림무비

Triangle-Net

대기업 · 벤처간 협력 모델 구축

벤처코리아 2004의 일환으로 협회와 대기업, 벤처기업이 3각축을 이뤄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Triangle-Net' 이 5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마련되었다. 삼성전자, KT,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 8곳과 벤처기업 40곳이 참가해 상호 비즈니스협력을 위한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Triangle-Net' 은 고부가가치 기술 및 우량제품 발굴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마케팅 노하우 부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전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 벤처기업간 비즈니스 교류사업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상호간 Win-Win 할 수 있는 공생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lobal Partnership Program

실질적인 해외 비즈니스 프로그램 마련

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해외 대형기업과 국내 벤처기업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이 개최되었다. 이번 상담회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홍콩, 독일 등지에서 참가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 벤처 기업들과 구매상담 및 투자 ·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은 협회가 그동안 구축해온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국내 벤처기업들의 실질적인 해외 비즈니스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대형유통사인 엔크로스엔터프라이즈, 중국 산업자동화시스템 전문업체인 안후이차이나 등 해외 7개국에서 12개 대형기업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철저한 사전매칭에 의한 상담회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각 해외시장에 걸친 협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들 기업과 상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협상 및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도 협회측에서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100억 규모 '벤처문화재단' 조성



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사회공헌포럼'이 4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호서대 양용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 사무국장, 벤처윤리위원회 김일섭 위원장, 한양대 한정화 교수,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가 참석해 건전한 벤처문화를 만들기 위한 벤처인들의 자발적 노력 및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이 한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패널로 나선 위국장은 "현재 벤처기업은 생존을 걱정할 단계"라고 전제한 뒤 "그룹에도 사회공헌 활동은 하나의 생존전략인 만큼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벤처지수를 개발, 모범 벤처기업을 선정하거나 클린벤처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 코스닥위원회 등과 협의해 기업공개시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컴퓨터 조대표(협회 부회장)는 "사회공헌 실천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가운데 하나로 벤처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벤처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대표는 "재단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의적이고 건전한 벤처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벤처의 순기능에 대한 사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벤처문화재단은 ▲벤처 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가 양성프로그램 ▲이공계 기피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행사 ▲反벤처정서 해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벤처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수 벤처기업 채용에 구직자 1000여 명 몰려



2 004 우수 벤처기업 채용박람회'가 4일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 및 벤처기업 우수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된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지난 3일까지 1800여 명이 지원했다. 온라인 지원 접수를 거쳐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오프라인 박람회에는 약 10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려 열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했거나 현장에서 작성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기업체 인사 담당자와 1:1 진지한 면담과 함께 무료 직무적성검사도 받았다.

이 날 행사에는 한글과컴퓨터·터보테크·픽셀플러스 등 26개사가 구직접수를 받았으며, 엠씨에스로직·길라씨엔아이·화인에스피엔은 현장에서 공개채용설명회를 열었다. 또, 취업특강으로 '성공취업을 위한 이미지 Make-up',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협회가 연중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4월 시작된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은 지난 달 중순에 연간 목표치인 1000명을 초과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람회장에는 벤처기업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와 구직자를 만나보기도 했으며, 현장 면접을 통과한 구직자 중 일부를 2차 면접을 거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버스를 대절해 지방에서 단체로 올라온 구직 희망자들도 있어 우수 벤처기업 취업에 대한 열의를 실감케 했다.

한편 15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도 구직자들의 이력서 등록과 채용을 원하는 벤처기업의 면접제외가 계속 이어져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협회는 본 행사와 더불어 연말까지 1사1인 채용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연말이면 2000명이 넘는 채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론에 비친 VK2004

'벤처코리아2004'의 열기만큼이나 언론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들이 '벤처코리아2004'의 행사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